

젠더시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이 수 진*

우리사회의 변동을 대표하는 현상의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할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탁아시설의 부족, 육아부담 등의 사회적측면과 결혼연기, 출산연기 등의 개인적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의 논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을 뿐, 결혼연기와 출산연기 등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관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6차조사자료를 이용, 실제로 미혼상태를 지속하거나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결혼상태의 변화를 겪은 표본을 추출하여 미혼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 미혼에서 기혼으로 이동하게 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변인과 직무만족변인과 같은 가치변인을 독립변수에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다.

1. 서론

90년대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사회변동의 여러 가지측면 중에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의 변화로 인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이 저출산(합계특수출산율2000년 1.47→2003년 1.19 :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탁아시설의 부족,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장애, 개인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지출증가 등을 들수 있다. 또한, 개인적 측면으로서는 결혼연기, 독신선호가치관, 출산연기, 부부중심선호가치관 등의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수 있다.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를 논의할 때, 지금까지는 기혼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자체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검토하거나 혹은 출산후의 양육의 지원책으로서 아동수당지급,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가제도의 확산보급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에 중점으로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사회경제적인 환경과의 관련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미혼자의 출산율이 극히 낮은 사회에서는 미혼화, 만혼화가 출산율의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소자화의 배경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미혼남녀가 왜 결혼을 늦추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

*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박사과정

된다.

한국보다 빠른 시기에 저출산문제를 경험한 일본(합계특수출산율 1989년 1.57→2003년 1.29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경우, 저출산의 원인이 독신의 증가와 만혼에 있는 것에 착안하여, 결혼연기의 영향요인, 출산연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행해졌다.

일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유배우인지 무배우인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樋口, 1994), 결혼선택과 취업선택에 관한 연구(滋野 외, 1997), 독신여성의 결혼의욕과 출산의욕에 관한 연구(釜野, 2004)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현상이 주로 경제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와 부양비증가 등의 사회적 과제와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다.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출산후 취업지속의 결정요인(김지경, 2004),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후 취업지속결정요인(서지원, 1997) 등 출산후와 여성취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있으나, 결혼선택과 출산선택 「왜 결혼을 연기하는가, 왜 출산을 연기하는가」에 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저출산논의의 기초가 되는 결혼연기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저출산논의의 중심에 놓여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있어서의 결혼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에 관한 의식변화

가. 결혼에 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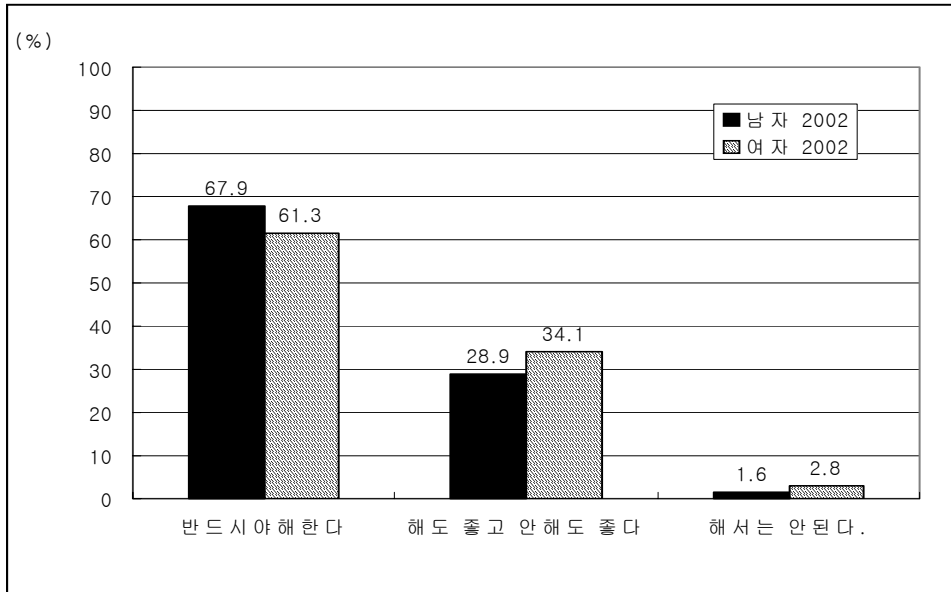
최근 UN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5세 이상 남녀 가운데 한번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독신자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 0.3%, 남자0.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동원 외, 2002). 결혼은 언젠가는 해야하는 것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 정서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2)¹⁾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가 6~70%,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의견이 30%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의식차이를 엿볼수 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출생동향기본조사(2002)²⁾에 따르면, 「어느 연령이 되기전까지는 결혼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절반,

1) 사회통계조사는 전국 약 230,000의 표본가구내의 가구원 약 70,000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매년 실시.

2) 出生動向基本調査는 기혼자조사와 독신자조사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다. 독신자조사는 전국의 18세이상 50세 미만의 독신자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항목들을 다양하게 질문하고 있다. 5년에 한번씩 실시되며 2002년 12회 조사가 실시완료되었다.

「이상적인 상대를 기다린다」는 응답이 절반정도 차지하였다.

<표 1> 결혼에 관한 의식



자료 :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2), 통계청

나. 결혼의 이점 · 독신의 이점

<표 2> 결혼의 이점 · 독신의 이점

결혼생활	이점있다	이점없다	독신생활	이점있다	이점없다.
미혼남성 (n=249)	85.9%	14.1%	미혼남성 (n=249)	71.5%	28.5%
미혼여성 (n=113)	78.8%	21.2%	미혼여성 (n=113)	85.0%	15.0%

자료 : F-GENS 한국패널조사(2003, 200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젠더연구의 프론티어³⁾

미혼남성의 경우, 독신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 한편, 미혼여성도 독신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출생동향기본조사의 독신자조사(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2)에 의하면, 미혼남녀(n=3987)의 62.3%, 미혼여성(n=3494)의 69.4%가 결혼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독신의 이점에 관해서는 미혼남성의 79.8%, 미혼여성의 86.6%가 이점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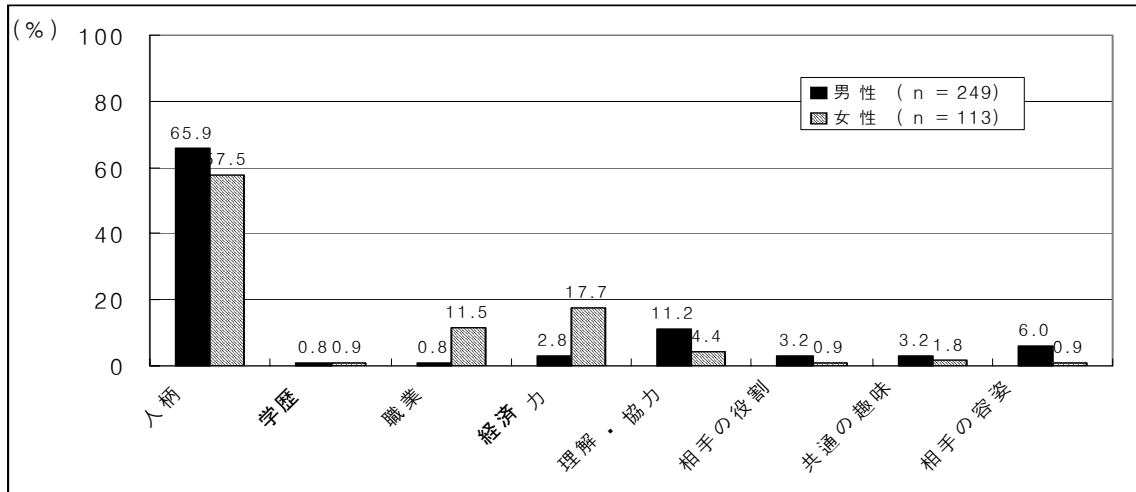
결혼과 독신의 이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결혼과 독신의 이점을 질문한 결과, 한국

3) F-GENS 한국패널조사는 한국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44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취업, 가족, 가계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현재2003년, 2004년도의 조사가 실시완료되었다.

과 일본의 미혼남녀모두 정신적인 안식처를 얻을수 있는 점을 결혼의 가장 최대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독신의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미혼남녀모두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자유롭다는 점을 독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 결혼상대의 조건

<표 3> 결혼상대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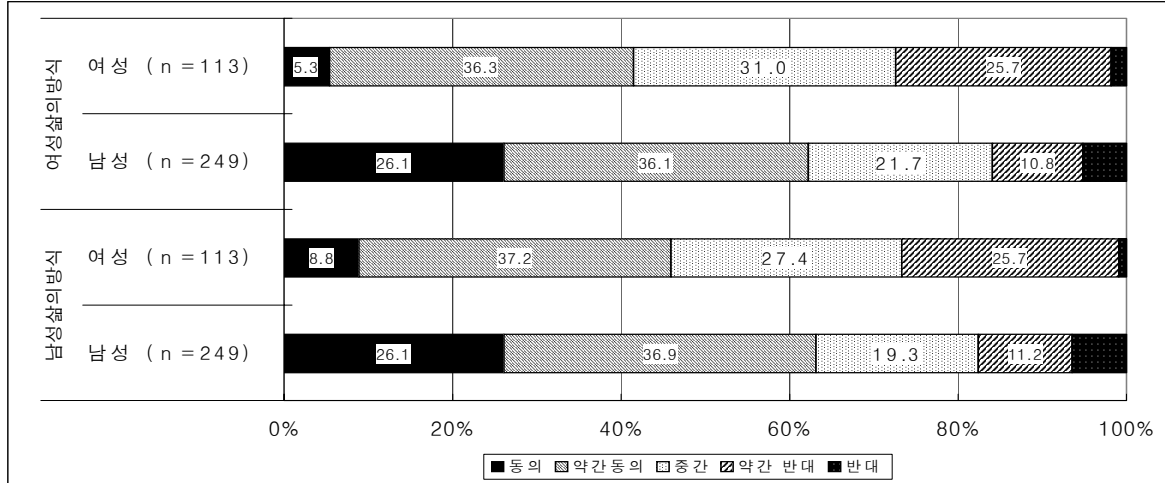


자료 : F-GENS 한국패널조사(2003, 200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젠더연구의 프론티어

결혼상대의 조건으로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남녀모두 인격이었다. 여성은 그 다음으로 경제력과 직업을 중시하는 있으나, 남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상대의 용모를 중시한다고 하는 대답도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원 외(2002)의 연구에서도, 성격을 1순위로 뽑은 여성은 35.5%, 남성은 33.5%였고, 남녀간의 의견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으로서는 외모와 장래가능성으로, 외모의 경우는 남자가 6.7%인데 반해 여자는 1.9%에 머물러 있고, 장래가능성의 경우는 남자가 2.4%인데 반해 여자는 8.2%로 나타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교환조건이 성립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라. 삶의 방식에 관한 의식

<표 4> 남녀의 삶의 방식에 관한 의식



자료 : F-GENS 한국패널조사(2003, 2004),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젠더연구의 프론티어

F-GENS 한국패널에서는 [남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독신생활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고찰

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고정요인

① 학력

樋口(1994), 金子(1995)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학력의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혼인가 기혼인가의 현재의 상태에 주목한 樋口(1999)의 연구에서는 중. 고졸보다는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여성의 유배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滋野(1994)의 연구에서는 학력은 여성의 결혼선택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관련변수(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와의 동거)

樋口(1999)는 미혼인가 기혼인가의 결혼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생존여부와 부모와의 동거를 설명변수로서 분석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동거는 여성의 유배우율을 낮추고,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여성의 유배우율이 높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모의 생존여부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생존은 여성의 유배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머니의 생존은 여성의 유배우율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변동요인

① 연령

滋野(1997)에서는 연령과 연령2차항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놓고 여성의 결혼선택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은 결혼선택에 정의 효과, 연령2차항은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많아지면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2차항의 효과는 일정연령을 경계로 해서 결혼선택에의 연령의 효과는 역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28세이후의 여성의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전국의 20~44세의 여성 3000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생활의식에 관한 의식조사」로부터, 결혼의욕의 규정요인을 검토한 釜野(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정의 효과가 나타나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의욕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② 수입

24세에서 3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소득과 노동소득2차항을 설명변수로 놓고 결혼선택에의 영향을 조사한 滋野(1997)의 연구에서는 노동소득은 여성의 결혼의사결정에 유의하게 정의 효과, 노동소득2차항은 여성의 결혼의사결정에 유의하게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여성은 결혼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소득2차항이 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정의 수준의 소득액을 넘으면 여성의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식으로부터 계산해봤을때, 연간 노동소득이 250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에 따라서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지지만, 연간 250만엔 이상일때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樋口(1999)의 연구에서도 수입이 많은 사람이 유배우율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③ 취업형태

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취업형태를 설명변수로 분석한 樋口(1999)의 연구결과, 일반기업의 정사원 보다는 무직자, 자영/가족종사자, 시간제노동자의 유배우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滋野(1997)의 분석에서는 취업형태는 결혼선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치변인

① 결혼에 관한 의식관련 변수

결혼의 필요성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욕이 높다는 연구(釜野(2004),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록 초혼연령이 빨라지게 된다고 하는(최새은 외, 2003)의 연구 등이 있다.

② 생활의식관련 변수

자립지향, 자기우선지향(釜野(2004), 생활설계 지향, 개인주의지향 (岩間, 2004) 등의 의식에 관련된 항목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유의한 결과는 얻어지지 않았다.

나. 출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고정요인

① 학력

樋口(1999)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서는 고졸보다는 대졸이상의 여성의 출산확률이 높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釜野(2004)에서는 출산의욕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교육년수가 길면길수록, 출산의욕이 높아진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경애(2003)의 연구에서는, 결혼으로부터 첫번째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에 학력의 영향을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준한(2003)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교육수준은 합계자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결혼코호트

이경애(2003)의 연구에서는, 80~84년 결혼코호트를 기준으로해서, 69년이전의 결혼코호트, 60~74년결혼코호트, 85~89년 결혼코호트, 90~94년 결혼코호트, 95~00년 결혼코호트의 결혼에서부터 첫번째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을 비교한 결과, 84년이전의 결혼코호트에서는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에서부터 첫번째자녀출산까지의 기간이 길고, 84년이후의 결혼코호트에서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변동요인

① 연령

樋口(1999)에서는 연령과 연령2차항을 설명변수로서해서 출산확률을 계산한 결과, 연령이 많아지면 출산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연령2차항에 관해서는 어느 일정연령까지는 연령이 많아지

면 출산선택의 확률이 높아지지만, 일정의 연령을 넘어서면 출산선택의 확률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釜野(2004)의 연구에서도 출산의욕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출산의욕이 낮다고 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岩間(2004)는 만 20~49세의 기혼남녀 3000인을 대상으로 한 [부부의 생활의식에 관한 조사]결과를 이용해서, 첫번째자녀, 두번째자녀, 세번째자녀의 출산의욕의 규정요인을 남녀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번째자녀의 경우, 여성에게 있어서는 연령이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났는데, 즉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의욕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남성에게 있어서는, 연령에 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두번째 자녀, 세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남녀모두 연령은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번째 자녀이후의 추가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경애(2003)에서도 여성의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혼에서부터 첫번째자녀출산까지의 시간이 짧아짐을 밝혀냈다.

② 수입

樋口(1999)연구에서는 여성의 본인수입이 많을수록 출산확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한편, 岩間(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은 본인의 수입이 많으면 출산의욕이 높아지지만, 여성은 남편의 수입이 여성의 출산의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③ 취업형태

岩間(2004)에서는 취업하고 있는 여성일수록 추가출산에 소극적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부인의 취업유무는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애(2003)에서는, 결혼전의 취업유무를 설명변수로서 결혼에서 첫번째자녀출산까지의 출산간격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성의 취업형태는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준한(2003)에서는 취업형태가 아닌 취업유무와 합계자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 미취업의 부인보다 합계자녀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 주거형태

駿河(2000)의 연구에서는 방의 크기가 출산율에 정의 효과 즉, 방의 크기가 클수록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변준한(2003)에서는 자가인지 아닌지와 합계자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가일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樋口(1999)의 결과에서는 주거형태는 출산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세대관련변수(부모와의 동거, 세대수입)

부모와의 동거에 관한 분석에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가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세대

보다 출산선택확률이 높다(樋口, 1999)는 결과, 3세대미만, 3세대이상으로 구분하여 첫자녀 출산간격을 분석한 결과도 3세대미만 세대의 여성이 결혼에서 첫번째자녀를 출산하기에 이르는 시간이 길다는 결과(이경애, 2003)를 얻어냈다.

세대의 총소득과 합계자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자녀수와는 유의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변준한, 2003). 이는 세대의 소득이 현재보다 증가한다고 해도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3) 가치변인

① 자녀에 관한 가치관

岩間(2004)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욕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변준한(2003)에서도 자녀의 필요성에 긍정적일 태도를 지닐수록 자녀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결혼선택과 출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하의 실증분석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결혼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족수준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가생활만족,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 생활전체만족수준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결혼선택(미혼지속, 결혼상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만족(보수, 취업안정성, 직무내용, 직무환경)수준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방법론

가.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차에서부터 6차에 걸친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

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상태와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와 개인의 경제 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결혼상태, 생활만족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한국노동연구원, 1999) 1998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총5000가구의 15세이상 모든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차조사를 실시한 이래 현재 2003년까지 6차에 걸친 조사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혼상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1단계 : n년도의 결혼상태가 미혼이었던 표본추출

2단계 : n+1년도의 결혼상태가 미혼이거나 기혼인자를 추출

3단계 : 1단계+2단계의 표본을 개인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통합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을 5차례 반복하여, 1차부터 6차까지의 데이터를 풀링하였다.

각 과정에서 추출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표본추출과정

연도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표본수		1286	1227	1076	1234	1288
성별	남자	683(53.1)	660(53.8)	551(51.2)	651(52.8)	693(53.8)
	여자	603(46.9)	567(46.2)	525(48.8)	583(47.2)	595(46.2)
연령		25.80(5.41)	26.22(5.86)	26.56(6.12)	26.53(6.00)	26.97(5.82)
학력	중졸미만	28(2.2)	28(2.3)	28(2.6)	26(2.1)	24(1.9)
	중. 고졸	763(59.3)	729(59.4)	593(55.1)	656(53.2)	622(48.3)
	대졸이상	495(38.5)	470(38.3)	455(42.3)	552(44.7)	642(49.8)
거주지역	서울	392(30.5)	359(29.3)	288(26.8)	367(29.7)	374(29.0)
	광역시	406(31.6)	408(33.3)	361(33.6)	406(32.9)	435(33.8)
	경기	202(15.7)	190(15.5)	176(16.4)	184(14.9)	191(14.8)
	지방도시	286(22.2)	270(22.0)	251(23.3)	277(22.4)	288(22.4)
취업유무	임금	729(56.7)	745(60.7)	662(61.5)	770(62.4)	842(65.4)
	비임금	92(7.2)	65(5.3)	56(5.2)	64(5.2)	67(5.2)
	가족종사자	0(0.0)	27(2.2)	18(1.7)	18(1.5)	18(1.4)
	미취업	465(36.2)	390(31.8)	340(31.6)	382(31.0)	361(28.0)
종사상지위	상용직	636(87.2)	605(82.2)	566(77.4)	655(77.6)	723(78.5)
	임시직	59(8.2)	98(13.3)	65(8.9)	75(8.9)	87(9.4)
	일용직	33(4.5)	33(4.5)	27(3.7)	36(4.3)	33(3.6)
	고용주	-	-	58(7.9)	64(7.6)	61(6.6)
	무급가족종사	-	-	15(2.1)	14(1.7)	17(1.8)
근무시간형태	시간제	66(9.1)	36(4.3)	32(4.9)	46(6.0)	39(4.7)
	전일제	662(90.9)	793(95.7)	626(95.1)	715(94.0)	798(95.3)
생활만족도		2.85(0.84)	2.92(0.76)	3.01(0.63)	3.04(0.62)	3.52(0.65)
여가만족도		2.79(0.89)	2.76(0.84)	2.80(0.76)	2.84(0.74)	2.91(0.74)
주거환경만족도		2.98(0.86)	3.03(0.76)	3.03(0.70)	3.06(0.73)	3.12(0.76)
가족관계만족도		3.58(0.81)	3.50(0.69)	3.48(0.66)	3.47(0.63)	3.52(0.65)
직무만족-임금		2.52(0.99)	2.68(0.82)	2.66(0.80)	2.67(0.76)	2.77(0.72)
직무만족-취업의 안정성		3.02(1.06)	3.04(0.85)	3.09(0.77)	3.08(0.75)	3.21(0.69)
직무만족-직무내용		3.30(0.93)	3.31(0.74)	3.30(0.68)	3.28(0.67)	3.36(0.68)
직무만족-근무환경		3.11(0.98)	3.18(0.77)	3.17(0.75)	3.13(0.69)	3.24(0.66)

자료 : 한국노동패널 1~6차조사.

11, 792명 추출되었으나 학교이수여부가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상태의 표본을 제외, 18세 이상 남녀표본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6,111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나. 변수의 측정

<표 6> 변수의 측정

항목		자료구성과 구체적 지표	
종속변인	결혼상태변화	미혼지속*	미혼지속(n년도 미혼, n+1년 미혼)=0
		결혼상태변화	결혼상태변화(n년도 미혼, n+1년 기혼)=1
독립변인	고정변인	본인의 학력*	중졸미만=1 (중고졸=0) 대학이상=1
		거주지역*	서울=1 (광역시=0) 경기=1 지방도시=1
		출생코호트*	1955~1959년출생=1 1960~1964년출생=1 1965~1969년출생=1 1970~1974년출생=1 1975~1979년출생=1 (1980~1984년출생=0)
	변동변인	취업유무*	취업자=1 (미취업자=0)
		종사상의 지위*	상용직=1 임시직=1 (일용직=0)
		근무시간형태*	전일제=1 (시간제=0)
		본인n년도 수입	
		본인의 연령	
		본인의 연령제공	
	가치변인	생활만족도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여가만족도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주거환경 만족도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가족관계 만족도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직무만족 (임금)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직무만족 (취업안정성)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직무만족 (직무내용)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직무만족 (근무환경)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결혼상태변화

<표 7>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변화

	결혼변화		합계
	미혼지속	기혼	
남자	3033(93.7%)	205(6.3%)	3238(100%)
여자	2694(93.8%)	179(6.2%)	2873(100%)
합계	5727(93.7%)	384(6.3%)	6111(100%)

자료 : 한국노동패널 1~6차조사

2. 추정결과

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별분석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성표본과 여성표본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표 8> 은 남성대상자의 미혼지속자를 0, 미혼에서 기혼으로 결혼상태가 변화한 사람을 1로 한 가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분석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9>는 여성대상자의 프로빗분석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1은 고정변인과 변동변인(사회인구학적 변수), 모형2는 모형1에 가치변인(생활만족도, 여가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추가, 모형3은 모형2에 출생코호트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첫번째, 학력은 남성표본에서만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표본에 있어서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에서 $p < 0.01$ 의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고졸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있다. 한편 남성표본과는 달리, 여성표본에서의 학력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진다고하는 선행연구(樋口 1994; 1995 金子)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거주지역은 남성표본은 모형1에서만, 여자표본은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결혼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일수록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남자보다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표본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 지역거주 여성일수록 광역도시거주여성보다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취업유무는 남성표본에서만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미취업자의 경우 남성 취업자보다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성표본에 있어서는 취업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8>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표본)

		모형1	모형2 (생활만족도추가)	모형3 (출생코호트추가)
상수항		-2.5396(0.54)***	-2.9532(0.58)***	-4.6269(1.91)**
본인의 학력	중졸미만	-0.3673(0.24)	-0.3374(0.24)	-0.3830(0.32)
	중/고졸	-	-	-
	대졸이상	0.2283(0.07)***	0.2081(0.07)***	0.1326(0.07)*
거주지역	서울	-0.1502(0.08)*	-0.1283(0.08)	-0.1409(0.08)
	광역시도	-	-	-
	경기	-0.0748(0.10)	-0.760(0.10)	-0.063(0.10)
취업유무	취업자	-	-	-
	미취업자	-0.5149(0.09)***	-0.5046(0.09)***	-0.4706(0.10)***
연령		0.0532(0.03)*	0.0570(0.03)*	0.1540(0.14)
연령제곱		-0.0005(0.00)	-0.0005(0.00)	-0.0021(0.00)
생활만족도			-0.0238(0.05)	-0.0219(0.05)
여가만족도			0.0099(0.05)	0.0265(0.05)
주거환경만족도			0.094(0.05)*	0.0805(0.06)
가족관계만족도			0.026(0.05)	0.0242(0.05)
출생코호트	1955~1959년출생			-0.4104(0.69)
	1960~1964년출생			0.1198(0.45)
	1965~1969년출생			0.3358(0.41)
	1970~1974년출생			0.4175(0.37)
	1975~1979년출생			0.0534(0.34)
	1980~1984년출생			-
Log Likelihood		-726.583	-729.376	-696.136

자료 : 한국노동패널1~6차조사

표본 : 3238

***p<0.01, **p<0.05, *p<0.1

네번째, 연령은 여성표본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표본의 경우, 연령의 증가는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에서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혼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제곱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에서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 일정연령이 되면 연령이 증가해도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남성에 있어서는 연령의 효과가 모형1과 모형2에서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 그치고 있다.

다섯번째, 생활만족도가 결혼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 여가만족도,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표본에서만 주거환경만족도가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성표본에서는 주거환경에 만족할수

특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⁴⁾. 여성표본에서는 생활만족도 등의 가치변인은 여성의 결혼선택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번째, 남성표본에서는 출생코호트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표본에서는 1980~84년 출생코호트보다 1955~59년 출생코호트가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표본)

		모형1	모형2 (생활만족도추가)	모형3 (출생코호트추가)
상수항		-8.177(1.03)***	-8.2381(1.06)***	-12.3881(2.47)***
본인의 학력	중졸미만	0.4311(0.41)	0.4583(0.41)	-0.070(0.52)
	중/고졸	-	-	-
	대졸이상	-0.0107(0.08)	-0.0163(0.08)	-0.047(0.08)
거주지역	서울	-0.2789(0.09)***	-0.2344(0.09)***	-0.2624(0.09)***
	광역시	-	-	-
	경기	-0.2789(0.11)**	-0.2834(0.11)**	-0.2791(0.12)**
취업유무	취업자	-	-	-
	미취업자	-0.0571(0.08)	-0.0600(0.08)	-0.0022(0.08)
연령		0.4626(0.07)***	0.4649(0.07)***	0.8056(0.20)***
연령제곱		-0.007(0.00)***	-0.0075(0.00)***	-0.014(0.00)***
생활만족도			-0.0154(0.06)	-0.0088(0.06)
여가만족도			-0.013(0.05)	-0.0157(0.05)
주거환경만족도			0.056(0.06)	-0.0154(0.06)
가족관계만족도			-0.0134(0.06)	0.0464(0.06)
출생코호트	1955~1959년출생			2.5181(1.04)**
	1960~1964년출생			×
	1965~1969년출생			-0.0717(0.33)
	1970~1974년출생			0.3160(0.25)
	1975~1979년출생			0.064(0.21)
	1980~1984년출생			-
Log Likelihood		-630.935	-630.489	-606.475

자료 : 한국노동패널1~6차조사

표본 : 2873

***p<0.01, **p<0.05, *p<0.1

나. 취업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10>과 같다. 모형1에서는 고정변인과 변동변인(사회인구학적변인)과 가치변인(직무만족변인), 모형2가치변인(생활만족도 추가), 모형3에서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을 설명변수로서 동시에 추가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4) 모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거의 입주형태에서 자가인지 아닌지에 따른 결혼선택에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주거의 입주형태는 결혼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남성취업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1(직무만족)	모형2(생활만족도)	모형3 (직무만족+생활만족)
상수항		-4.1982(0.90)***	-4.1150(0.88)***	-4.5080(0.92)***
본인의 학력	중졸미만	-0.3458(0.28)	-0.3590(0.00)	-0.3355(0.28)
	중고졸	-	-	-
	대졸이상	0.2209(0.84)***	-0.2134(0.08)***	0.2100(0.08)**
거주지역	서울	-0.1386(0.09)	-0.1529(0.09)	-0.1255(0.09)
	광역시	-	-	-
	경기	-0.0222(0.11)	-0.0224(0.11)	-0.0287(0.11)
연령		0.1352(0.05)**	0.1307(0.05)**	0.1394(0.05)**
연령제곱		-0.0017(0.00)*	-0.0017(0.00)*	-0.0018(0.00)**
임금		-0.0001(0.00)		-0.0001(0.00)
임금제곱		5.80e-11(1.41e-10)		5.46e-11(1.41e-10)
직무만족-임금		0.0300(0.05)		0.0316(0.06)
직무만족-취업안정성		0.0655(0.06)		0.0671(0.05)
직무만족-직무내용		-0.0668(0.06)		-0.0806(0.06)
직무만족-근무환경		0.1081(0.06)**		0.1014(0.06)
생활만족도			-0.0349(0.06)	-0.0655(0.07)
여가만족도			0.0331(0.05)	0.0628(0.06)
주거환경만족도			0.0780(0.06)	-0.0257(0.06)
가족관계만족도			0.0440(0.06)	0.1074(0.06)*
Log Likelihood		-588.337	-609.038	-585.842

자료 : 한국노동패널 1~6차조사

표본 : 2210

***p<0.01, **p<0.05, *p<0.1

첫번째, 남성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학력의 효과는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중고졸보다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취업자에서는 중고졸학력보다는 중졸미만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거주지역은 남성취업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취업자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여성일수록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연령의 증가는 남성취업자, 여성취업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서, 연령이 많아지면 결혼선택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전체 남녀표본을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와 선행연구(樋口 1994; 金子 1995; 滋野 1997)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네번째, 직무만족 관련 변수의 효과를 보면, 남성취업자와 여성취업자모두에게서 근무환경의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영향의 방향이 역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취업자의 경우, 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지지만, 여성취업자의 경우, 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만족을 추가한 모형2에서, 생활만족, 여가만족, 주거환경만족, 가족관계만족은 남녀모두에게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모형3에서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을 하나의 식에 넣었을 때, 남성취업자의 가족관계만족도만이 결혼선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남성취업자가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을 동시에 설명변수로서 포함시켰을때, 직무만족-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도 확인되었다.

<표 11> 여성취업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1(직무만족)	모형2(생활만족도)	모형3 (직무만족+생활만족)
상수항		-8.2565(1.28)***	-8.5694	-8.1582(1.31)***
본인의 학력	중졸미만	0.9571(0.54)*	1.0982(0.54)*	1.0179(0.55)*
	중고졸	-	-	-
	대졸이상	0.0085(0.09)	-0.0189*(0.96)	0.0048(0.10)
거주지역	서울	-0.2878(0.11)***	-0.2914(0.10)***	-0.2835(0.11)**
	광역시	-	-	-
	경기	-0.4060(0.15)***	-0.3884(0.14)***	-0.4161(0.15)***
연령		0.4781(0.09)***	0.5003(0.09)***	0.4838(0.09)***
연령제곱		-0.0075(0.00)***	-0.0079(0.00)***	-0.0076(0.00)***
임금		-0.0011(0.00)		-0.0001(0.00)
임금제곱		1.13e-09(1.50e-09)		9.74e-10(1.50e-09)
직무만족-임금		0.0376(0.06)		0.0358(0.06)
직무만족-취업안정성		-0.0339(0.06)		-0.0317(0.06)
직무만족-직무내용		0.1901(0.08)		0.1974(0.82)**
직무만족-근무환경		-0.2503(0.74)**		-0.2495(0.75)***
생활만족도			-0.0698(0.08)	-0.0588(0.08)
여가만족도			-0.0338(0.06)	-0.0757(0.07)
주거환경만족도			0.1063(0.07)	-0.0281(0.06)
가족관계만족도			-0.0585(0.07)	0.1139(0.07)
Log Likelihood		-429.208	-443.356	-437.311

자료 : 한국노동패널1~6차조사

표본 : 2210

***p<0.01, **p<0.05, *p<0.1

다. 미취업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 미취업 남성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취업여성의 경우, 연령이외의 변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미취업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취업남성	미취업여성
상수항		-2.788(1.04)***	-10.6425(2.65)***
본인의 학력	중졸미만	-0.442(0.58)	-
	중/고졸	-	-
거주지역	대졸이상	0.0835(0.18)	-0.0362(0.15)
	서울	-0.0191(0.20)	-0.1309(0.17)
	광역시	-	-
	경기	-0.5875(0.38)	-0.1058(0.20)
연령		0.0256(0.05)	0.6478(0.21)***
연령제곱		9.69e-06(0.00)	-0.0115(0.00)***
생활만족도		0.0481(0.13)	0.0974(0.12)
여가만족도		-0.0782(0.13)	0.013(0.10)
주거환경만족도		0.1374(0.14)	-0.0801(0.11)
가족관계만족도		-0.0570(0.13)	0.0743(0.11)
Log Likelihood		-112.750	-180.479

자료 : 한국노동패널 1~6차조사

미취업 남성표본 : 937 미취업여성표본 : 912

***p<0.01, **p<0.05,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별 차이, 생활만족도의 영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났던 바와 같이, 연령은 남녀모두의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의 연령의 영향은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강하다고 할수 있겠다.

둘째, 거주지역은 여성표본에서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경기지역 거주 여성들이 광역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다는 것은, 거주지역과 취업과의 상호관련성을 추측해 볼수 있겠다.

셋째, 취업자에 있어서 남녀모두 근무환경만족도가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근무환경만족도가 높은 남성은 결혼선택의 확률이 높아지지만, 근무환경만족도가 높은 여성은 결혼선택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남성은 직업에서의 만족이 확보되면 결혼을 선택하지만, 여성은 직업에서의 만족이 확보되면 보다 더 직업에 몰두하게 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한다고 추측해 볼수 있겠다.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므로, 결혼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몇몇 선행연구가 시도는 하였으나, 연령, 학력의 영향 등 결과가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결혼이라는 선택은 사회경제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직무만족이라고 하는 가치변인을 독립변수로서 채택하고, 미미하나마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변준한(2003). 「기혼 유배우여성의 자녀수 결정요인 분석 - 20~44세 기혼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애(2003).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첫 출산간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원 외(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학지사
- 최새은·옥선화(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8권 1호.
- 岩間曉子(2004). 「既婚男女の出産意欲にみられる構造」 目黒依子·西岡八郎編 『少子化のGENDER分析』 勁草書房
-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2002). 『わが國獨身層の結婚觀と家族觀—第12回出生動向基本調査』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編. 厚生統計協會
- 釜野さおり(2004). 「獨身女性の結婚意欲と出産意欲」 目黒依子·西岡八郎編 『少子化のGENDER分析』 勁草書房
- 金子隆一(1995). 「わが國女子コーホート晩婚化の要因について—平均初婚年齢差の過程·要因分析」 『人口問題研究』 第52—2卷
- 滋野由紀子·大日康史(1997). 「女性の結婚選擇と就業選擇に關する一考察」 『家計經濟研究』 第36号
- 駿河輝和 外(2000). 「夫の通勤時間が出生率に与える影響」 『家計經濟研究』 第47号
- 樋口美雄(1994). 「育兒休業制度の實証分析」 社會保障研究所編 『現代家族と社會保障』 東京大學出版部
- ___·阿部正浩(1999). 「經濟變動と女性の結婚·出生·就業のタイミング」 樋口美雄·岩田正美 編 『パネルデータからみた現代女性』 東洋經濟新報社⁵⁾

5) 일본어문헌은 일본식표기순에 따라 나열하였슴

